

투데이

대형마트 휴일 월 4회로 확대 추진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 발의 야간 영업 금지·출점 제한 등 규제 강화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무더기로 인

용되면서 중단됐던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영업 정지도 지자체의 조례 개정과 절차상 보완 작업과 함께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 등은 대형

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각각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는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월 2회 영업 정지를 골자로 하는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이르면 10월 중 적용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최근 해당 지방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법원이 문제 삼았던 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절차 보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지방의회 조례가 영업 규제 내용을 정하면서 하위 규정과 상위법이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유통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갯벌 수조, 농업박람회서 다시 만나요”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인기를 모았던 전남도관의 갯벌 수조를 나주 국제농업박람회(10월 5일~29일)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16일 “여수박람회에

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전남도관의 갯벌 수조와 염전 수차 등을 해체하지 않고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장소로 옮길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람회에는 광주, 여수, 서울, 부

산 등 국내 23개 지자체관이 운영됐는데 전남도관은 신안 증도에서 갯벌 5t를 공수, 갯벌 수조(6×3×1.3m)를 만들었다. 이 수조 안에는 칠게, 농게, 말뚝망둥어, 농게, 갯지렁이 등의 갯벌생물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의 눈길을 끌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광주시 A·전남도 B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된 민선 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에 관한 종합평가 결과, 광주시는 A, 전남도는 B등급을 각각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SA·A·B·C·D 등 5개 등급으로 나눠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종합평가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부산·대전·경기·충남·경북 등 5개였으며, A는 광주와 울산·충북, B는 전남과 인천·강원·전북, C는 대구와 제주가 각각 받았다.

광주시는 주민소통과 웹소통 부문에서 최우수인 SA 등급을, 전남도는 목표달성 부문에서 다른 7개 지자체와 함께 SA등급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안부, 광주시 공기업 인사 검증조례 무효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행정안전부가 광주시의 ‘공기업 사장 인사 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행안부는 광주시의회가 재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포함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상위법(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관련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본안 심리에 앞서 이달 내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행안부의 이 같은 소송에 따라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 조례는 단체장이 공기업 사장 임명 전 시의원 4명과 시민단체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 공청회를 거쳐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가 단체장의 임원 임명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이 포함된 것은 정치성을 배제하도록 한 공기업법 위반이라고 제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제의를 거부했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공직자 금품·향응수수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앞으로는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태료를 물게 될 것 같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연필뉴스

오문철 “김성래에 박지원 로비자금 2억 더 줬다”

檢, 박지원·정두언 불구속 기소 검토

보해저축은행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대표가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명목으로 김성래(62·여·구속기소) 전 선안문고를 부회장에 2억원을 더 건넨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은식 부장검사)은 최근 계좌추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오씨로부터 ‘박 원내대표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김 전 부회장에 건넨 액수가 총 4억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선 조사에서 오씨는 김 전 부회장에 유상증자 유치 대가로 7억원, 박 원내대표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 등 총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이 지난해 박 원내대표의 보좌관 K씨를 한 차례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김 전 부회장이 실제 박 원내대표에 대한 로비 목적으로 K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K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 측은 그러나 “로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김성래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K씨 측도 “김성래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합수단은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박 원내대표를 이르면 다음 주중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사단주주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뉴스

신임 헌법재판관 이진성·김창중 지명... 민주, 김이수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중태·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중(55)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1년 넘게 공석이던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이수(59·사법연수원 9기)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진성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법 경경지원장, 서울지·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

임했다.

김창중 내정자는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구지법 의성지원장과 김천지원장, 대구지·고법 부장판사, 대구지·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대구지역 향판 출신이다.

김이수 원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9회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



전남도 신임 국장 프로필

이호경 행정지원국장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에서 중앙 공무원과 지역 공무원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등 친화력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합리적인 온화한 성격이지만 일에 있어서는 추진력이 뛰어나다.

▲해남(58) ▲방통대 행정학과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지역협력본부장 ▲광양청 행정개발본부장 ▲전남도 비서실장

이승욱 관광문화국장 행복마을 사업 등 전남도의 핵심사업을 분개도에 올려 놓아 박지사의 신임이 두텁다. 섬세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겨 모든 일처리에 실수가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진(56) ▲방통대 행정학과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정책기획관 ▲종합민원실장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2년 제9기)

- 개강일시 : 2012. 9. 7(금) 기초A반 9:30, 기초B반 19:00 심화A반 9:30, 심화B반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2. 7. 16(월) ~ 2012. 8. 24(금)
- 수업기간 : 2012. 9. 7(금) ~ 2012. 12. 21(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2 모집인원 : 기초반 : A반, B반 각 30명
심화반 : A반, B반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3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토요일
A 반 : 금, 토 오전 09:30~12:30
B 반 : 금 야간 19:00~22:00 토 오후 14:00~17:00

4 수료 후 특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사)국가공인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 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대출금리: 연5.5% ~ 대출금액: 1,000만원 ~ 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리모델링전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상성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더불어저축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 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실제 사례입니다

부채 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주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묘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빈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